

오전 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 예배부름	..... 인도자
※ 예배기원	..... 인도자
※ 경배찬송	.....9장(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 다 같이
※ 교독문	..... 35(시편84편) ..... 다 같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이
찬송	..... 305장(나 같은 죄인 살리신) ..... 다 같이
예배기도	..... 1부 선우명환집사 2부 이종봉권사
응답송	..... 찬양대
이달의찬양	.....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 다 같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 다 같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li> <li>* 남신도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li> <li>*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주옵소서.</li> </ul>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 에스라 3:10-13 ..... 김종천집사
찬양	.....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b>&lt; 믿음의 감성을 회복 하십시오 &gt;</b>
기도	..... 최세열목사
◆응답하는 예배◆	
찬송	..... 325장(부름 받아 나선 이 몸) ..... 다 같이
봉헌	..... (남신도회) ..... 다 같이
봉헌기도	.....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 말은이
※ 찬송	.....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같이
※ 축도	..... 최세열목사
※ 축복송	..... 찬양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시백기도회(월-금)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인도 / 강은순전도사	새벽 5:00
찬양 / 김애자권사	기도 / 김애자권사	찬양 / 다함께	인도 : 담임목사
본문 / 임후 3:14-17	말씀 / 최세열목사	기도 / 한마음기도	(마가복음강해)
말씀 / 최세열목사	바울 묵회자 7스피릿/제4과정	본문 / 시편 46:1-3	<b>금요기도회</b>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거는 묵회자”	주기도문 / 다함께	말씀 / 강은순전도사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받쳐 주는 힘”	각자 기도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 다함께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황경숙 김한순 김금자 김혜경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다음주 기도
	현금위원	9월 공영순 신혜영 김근중 이중열	다음주 1부 인도자
		10월 김애자 박상귀 이완수 김장숙	2부 김기희권사
	식당봉사	금주 에스더A 다음주 에스더B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현신찬양	금주 남신도회	다음주	말은이 9 구역

### 믿음의 감성을 회복하십시오 / 에스라 3:10-13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 동시에 다양한 감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인간의 감성은 지성과 이성의 도움을 받아 조절되고 적절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좋은 감성의 표현은 바른 믿음과 영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여정을 성전을 짓는 것에 자주 비유됩니다(벧전2장, 엡2:22).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혹은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어떤 감성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하여 기초를 놓으면서 드리는 예배의 장면입니다. 이 속에 나타난 백성들의 감성표현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하는 믿음의 감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 1. 감사하는 감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성전지대를 놓으면서 백성들은 찬송하며 감사하며 노래했습니다. 백성들이 인간적인 생각에 빠졌다면 불평과 원망이 앞설 수도 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포로가 되어 70년의 세월을 지낸 일. 어려운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모든 일들은 불평의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이유가 인간적인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감사하기만 해도 인격과 신앙과 삶에 있어서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감사와 찬양가운데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점에서 우리 인생도 감사와 찬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 2. 눈물의 감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이 중요한 순간에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옛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고, 이스라엘의 패망의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의 영화가 죄로 말미암아 붕괴되었음을 고백하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어지는 성전이 옛 성전에 비해 초라하지만 다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민들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불행과 아픔, 다른 이들의 고통에 대하여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눈물이 병에 잘 때 응답과 기적이 일어납니다(시56:8). 회개의 눈물,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한 눈물, 서로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감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은 바르게 세워집니다.

#### 3. 기뻐하는 감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백성들은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배를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일로 여겼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노인들은 눈물로서 기쁨을 표현했다면, 젊은이들은 이 기쁨과 감격을 함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하6장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로 인하여 넘치는 기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표현하는 감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의 감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에 얽매어서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의 감성은 그야말로 믿음의 감성입니다. 이들은 지금 성전 기초를 놓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이미 완성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감성을 회복함으로 성전과 인생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절 셋째 주(2014.9.26.)

**제39과 내가 보기에 좋구나!(창세기 1장 18-25절)**  
(함께 읽을 말씀 : 에베소서 5장 21절6장 4절, 마가복음 10장 2-10절)

#### 말씀묵상

1.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이 홀로 있는 아담이 안쓰러워서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는 결코 이혼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세의 법을 들어 이혼장만 써서 내밀면 쫓겨나야 하는 여성에 대한 보호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이기에 인간이 함부로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2. 배필을 가족이나 이웃, 공동체로 넓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갈 배필을 선물 받은 그 처음의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처음 배필로서 여러 생물을 흠으로 지어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은 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는 일을 합니다. 이름을 짓는 행위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내신 세계와 생명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만들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생명 가운데 사람에게 어울리는 배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잠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오십니다. 그러자 아담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 여자(너)는 남자(나)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낯선 남이 아닙니다. 나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나 하고는 성별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역할이 다른 녀입니다. '나와 같으면서도 다른 너' 라는 존재의 신비!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흠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못 생명과 사람은 같은 차원의 생명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하나님이 낳은 각별한 존재입니다. 시인은 사람을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서 못 생명을 다스리는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면서 감격합니다(시 8:3-8). 자연 생명 역시 하나님에서 인간에게 맡기신 일차 가족입니다. 정복하거나 이용하거나 파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흠으로 생명을 빚을 때의 심정으로 우리는 못 생명이 빛나게 이 땅을 살도록 가꾸어 주어야 합니다.

3.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하고 아담이 외쳤습니다. 이 감격 안에 공동체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남이 아니고 서로의 일부입니다. 그러면서도 엄연히 나와 다른 녀입니다. 이 다름-인종, 종교, 문화 등-을 가지고 함께, 기쁘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살롬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우리에게 '네 짝이다' 하시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너'를 보면서 아담이 느낀 그 감격을 우리도 회복합시다. 아멘.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남신도회 주일로 드렸습니다. 남신도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배 후에 각 신도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3. 우리교단의 총회가 23일부터 26일까지 변산대명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주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참회하는 교회”
4.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각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기로운 예물과 봉사

- 십 일 조 : 김상례 이경훈 김선주 원혜경 정선례 방옥남 김연학 김장숙 김기수 신혜영 강진숙 심복례 최승만 오복실 광현석 박지영 홍강의 김성희 김숙희 지대근 박홍만 정정희 이완수 김봉순 신공님 김귀례 김범진 김영란B 최세열 조성순 양희임 이현옥 지국남
- 감사헌금 : 이유선 서영자 최세열 조성순 이경훈 박정일 이유자 김순님 박기환 한옥자 김홍영 이종춘 심문자 허시은 이완수 김봉순 김지환가정 박경자 김동현가정 (일천번제) 김동현
- 건축헌금 : 최세열 조성순 박홍만 정정희 박요한 허 웅 김순님 심복례 최승만 홍강의 김성희 심승기 김숙희 지대근 방옥남 함경숙 이종춘 심문자 김귀례 김범진 이유자 사라희
- 비전씨앗 : 김울건 나인원 나인애 배영인

###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김금자	박홍만	3	10,000	10	심복례	7	강은순	이영선	김숙희	9	19,000	70	한국회
2	정정희	김한순	신혜영	3	12,000			8	김순님	오복실	김장숙	8	42,000	80	차소리
3	이준호	함경숙	함경숙	2	15,000	200	이종봉	9	김인순	이영란	박기환	5	11,000	200	강선자
4	김기희	최경선	정선례	5	35,000		김기희	10	장영분	노순영	노순영	4	16,000	70	
5	이문순	원혜경													
6	류종란	김애자	강지선	4	21,000	100	안해숙					43	181,000	670	

###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사 무 실

### 감 성

교육의 3대 영역은 지력, 심력, 체력이다. 사람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이다. 왜냐하면 성취동기는 지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성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미국을 경제 대공황에서 구출하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보라. 그는 39세 때 소아마비로 중증장애인이 되어 24년을 휠체어에 의지하고 살았다. 그러나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4선 대통령으로서 위업을 남겼다. 그는 솔직하고 겸손한 감성의 소유자였다. 그런 지도자에게 국민들은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

가슴이 식어버린 지식은 위험하다. 가슴이 없는 체력은 무모하다.

### 주는 기쁨

1900년, 에비슨 박사가 미국 카네기 홀에서 열린 만국 선교대회에 나가 조선의 의료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가난한 조선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큰 병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조선에 한 번도 가본적도 들은 적도 없는 세브란스라는 사업가가 선뜻 병원 건축비를 기증하였고, 그 결과 오늘의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앞뜰에는 이분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 밑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훨씬 더 큼니다.”

이 말은 세브란스가 에비슨 박사에게 병원 설립비를 주면서 한 말입니다. 세브란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기억됩니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4-38

2014.9.21.

### 9월의 기도 - 창조절 셋째주일/ 남신도주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으나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셨으니  
여호와 이레의 찬양을 드리나이다.

저희는 한가위 명절을 보내며  
반가운 만남의 기쁨을 나누었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화기애애한 이야기꽃도 피웠습니다.

하오나 치유되지 못한 생채기에서  
멈추지 않는 핏방울이 흘러내립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비극이 계속되고  
어려운 경제는 가장들의 어깨를 짓누르며,  
소외된 약자들에게 짙은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주님,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고,  
이 땅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남신도 주일에 간구하오니,  
남신도회에 성령을 부으사 주님의 일꾼 되게 하소서.  
교회의 굳건한 기둥으로 바로 서며,  
지치는 않는 열정으로 일으키시고,  
교회 안팎의 약한 지체를 돌보게 하소서.  
수고하고 애쓴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를 불러 일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목사 : 최세열(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전도사: 강은순, 이경훈 지휘: 김영란 반주: 안진영